

(明道菴 高氏 金氏宅 祖上)

고전적(高典籍)¹⁾ 김전적(金典籍)²⁾ 양사돈(兩查頓) 옥마을.

옛날 명두암(明道菴)³⁾ 곶덕(高宅)이 산천영기(山川靈氣)⁴⁾가 조아지고, 산천신령(山川神靈)⁵⁾이 조아져, 글을 허여도 좌원(壯元)하고 활을 허여도 좌원하고 글선비와 활선비가 납데다.

명두암(明道菴) 곶덕(高宅)에 첫자 직함(職銜)이 참봉(參奉), 둘째 직함 선달(先達) 훈장(訓長) 좌수(座首) 벨감(別監) 전적(典籍) 베슬이 날 때, 고전적(高典籍) 조식(子息)이 원(員)살이 신(臣)살이 베슬을 맡아 상시관(上試官)에 임명(任命)되어 장잇고을(靜義縣)⁶⁾ 현감(縣監)으로 가옵데다.

현감살이 삼년(三年)이 지나와 고향(故鄉)으로 돌아올 때, 장이선감(縣官) 여조식(女子息)이 단 딸아기롭씨 아들즙⁷⁾ 딸즙 열꽃맛재비⁸⁾가 되어 장이선감 여조식에 사랑이 더군다나 조아 집데다.

장잇고을을 나올 때, 여조식이 선물로 파랑저구리 연반물⁹⁾ 다홍치매 갑수댕기¹⁰⁾를 선물로 가전 읍데다. 서대상지¹¹⁾ 오색상지(五色箱子) 이복(衣服) 입성¹²⁾을 출려놓고 현감(縣監)살이 살아 나올 때, 파랑저구리 연반물 다홍치매 서대상지 오색상지 한양¹³⁾을 한양일월조상(漢陽日月祖上)이 딸락옵데다.¹³⁾

장잇선감이 명두암(明道菴)을 들어서 사랑한 여조식(女子息)을 불러놓고 선물로 앓아온¹⁴⁾ 이복(衣服) 입성 서대상지 오색상지(五色箱子)를 내여주니 아기씨가 혼이 웃어 반가이 함옵데다.

아기씨 여레듭술(十八歲) 나는 해, 정잇¹⁵⁾을(旌義縣) 예촌(禮村)¹⁵⁾ 양덕(梁宅)에서 친심¹⁶⁾하야(生月) 생시(生時) 기입하여 혼인(婚姻) 하기로 예문(禮文) 예장(禮狀)을 함데다.

아기씨가 우연(偶然)이도 참실¹⁷⁾ 그¹⁷⁾ 전¹⁷⁾ 막음이 골골산산뉘어져¹⁸⁾ 부모형제(父母兄弟) 몰라지고 일가친척(一家親戚)도 몰라져 허공(虛空)에 브름¹⁹⁾이 들고 온 집안이 탄식이 뉘옵데다.

아기씨, 흘날은 간간무레뉘어져²⁰⁾ 정하님²¹⁾과 수벨감²²⁾ 저 장남덜²³⁾이 산중(山中) 산앞²³⁾ 막

1) 고흥진(高弘進). 현종(顯宗) 때의 전적(典籍). 풍수가(風水家)로 유명함. 현 제주시 출생.

2) 김계창(金繼敞)? 현종 때의 전적(典籍). 명도촌인(明道村人) 명도암 선생(明道菴先生) 김진용(金晉鎔)의 아들.

3) 제주시 봉개동(奉蓋洞).

4) 뒷자리의 영기(靈氣)의 뜻.

5) 뒷자리의 신령(神靈).

6) 제주도 정의현?

7) 아들 겸.

8) 미상. 열 오누이를 마주 잡은 격이라는 뜻이라 함. 곧 아들 겸 딸 겸 됐다는 뜻.

9) 연한 반물.

10) 갑사(甲紗)댕기.

11) 대바구니.

12) 의복.

13) 따라옵디다.

14) 가져온.

15) 남원면 신.하례리(南元面新.下禮里)

16) 색시를 구하러 옴.

17) 참실 같은.

18) 이리저리 마구 흩어짐.

19) 바람.

20) 삽시간에 온데간데없이 사라짐.

21) 하녀를 존대하여 부르는 말.

22) 수(首)머슴.

23) 머슴들.

을(里) 촌촌(村村) 다 좇아도 좇을 수 엇어져, 아기씨 직히던²⁴⁾ 정하님은 이리 허여도 죽을 몸 저리 허여도 죽을 몸, 아기씨 좇당²⁵⁾ 죽젠²⁶⁾ 묵음 먹어 아기씨 뒷발을 종가²⁷⁾ 좇아나갑데다.

맹두암(明道菴)을 올라사고 알바마기²⁸⁾ 옷바마기 덕천(德泉里)²⁹⁾ 송당곳(松當藪)³⁰⁾을 지나 산중(山中) 앞을 들어사니 새비낭³¹⁾의 가시마다 장이선감(-縣監) 선물로 앓아오던³²⁾ 연발물 다홍치매 훈 복이³³⁾ 가시낭에³⁴⁾걸려진 흔적(痕迹)이 잇어지니 이것을 증거삼아 산중 산앞³⁵⁾지 아기씨 간 곳을 좇아볼 도례(道理)가 잇었구나.

아기씨는 이 때, 친심하고 예문 예장(禮文禮狀) 드린 예촌(禮村) 씨가(媳家) 약덕(梁宅) 울안 청대왓(靑竹田)의 들려들어, 울담 으피³⁵⁾ 버드낭³⁶⁾ 가지를 체여 버드낭주레 버드낭 피리³⁷⁾를 멩글아³⁸⁾초승달³⁹⁾은 반달(半月)이여, 월출동경(月出東?) 산에 떠오를 대 서창이도⁴⁰⁾ 불어가니, 예촌 양택(禮村梁宅) 수벨캄놈이 곤흔 몸에 즘들었다 피릿 소리가 저절로 서창하니 울안을 돌아댕겨 좇아가난, 아기씨는 몸을 피준헤야⁴¹⁾ 아무리 좇아도 좇일 수 엇어진다.

뒷날 아죽⁴²⁾ 날이 새니 수벨캄 잠남덜은 논밭(畓) 논섬으레⁴³⁾ 들어사 풍년가(豐年歌)를 불러가 멩 농가(農歌)를 불러가 멩 논메를⁴⁴⁾ 심단보난⁴⁵⁾ 총각머리⁴⁶⁾ 갑수(甲紗)댕기 등에 진 처녀아기씨가 인스(人事)도 엇이 들려들어 양손(兩手)에 논메뜰고 풍년가 농갓(農歌) 소리에 두당실 춤을 추 멩 논밭 가운데 연발물 다홍치매 푹푹마다 찢어진⁴⁷⁾ 저 치매를 펄통⁴⁸⁾에 빠치우멍, 아기씨 궁(宮)⁴⁹⁾ 안에 브름이 들고 허와에⁵⁰⁾ 브름이 들었구나.

이것 저것 모른, 아기씨 뒤를 종근⁵¹⁾ 느진덕정하님⁵²⁾은 우연(偶然)이 예촌꼴(禮村-)을 들어사니, 재미(滋味)도지게 풍년가 농가 부르멍 논메 싱그는⁵³⁾ 논밭이 션⁵⁴⁾ 바레여 보니⁵⁵⁾어여쁜 아기씨가 두당실 춤을 춘다. 느진덕정하님 얼뜬 들려 들어 아기씨 흘목을⁵⁶⁾ 비여잡고⁵⁷⁾

24) 지키던.

25) 찾다가.

26) 죽으려고.

27) 좇아.

28) 조천면 선흘리(朝天面善屹里)의 악명(岳名).

29) 구좌면 덕천리(舊左面德泉里).

30) 구좌면 송당리(舊左面松當里)의 숲.

31) 짚래나무.

32) 가져오던.

33) 한 폭이.

34) 가시나무에.

35) 울타리 옆의.

36) 버드나무.

37) 버들피리.

38) 만들어.

39) 초생달.

40) 서럽게도.

41) 숨겨서.

42) 아침.

43) 모를 내려.

44) 모를.

45) 심다가 보니.

46) 뒤로 넘겨 땅아 늘인 머리.

47) 찢어진.

48) 개펄.

49) 자궁(子宮)의 궁(宮). 성기의 뜻.

50) 허파에.

51) 좇은.

52) 하녀를 일컫는 말.

53) 심는. 모내는.

54) 있어서.

55) 바라보니.

『이거 무슨 일리리까?』

아기씨를 둘러업어 논밭 뱃갯길 나오라⁵⁸⁾ 뒤테렐⁵⁹⁾ 돌아본 즉 수벨캄 수장남덜토 귀를 대여
소곤소곤. 아기씨를 업어아전⁶⁰⁾ 산중(山中)으로 올라가니 정하님 발은 콩?실?찌⁶¹⁾ 붕물어지
고⁶²⁾ 멩두암(明道菴)을 당하니 아기씨 이대로 드라가당⁶³⁾ 큰 상전(-上典)이 성식을 내카⁶⁴⁾ 허여
어둡음⁶⁵⁾을 지드려 아무도 모르게 아기씨 눅단⁶⁶⁾ 사랑방으로 드라다 눅져두고⁶⁷⁾ 상전(上典) 앞
의 가 스실(事實) 말을 이른직, 자잇선감, 그제사

『어디 아는 신여(神女)를 좇아 문복(問卜)을 하라.』

그 때 가물개(甘水洞)⁶⁸⁾ 이원신무녀가 잘 안다 허여 문복(門僕)을 하니

『한양?을 한양일원조상(漢陽日月祖上)이 어찌 녁매무색에⁶⁹⁾ 똥라온⁷⁰⁾ 듯하우다.』

『구레민 어찌하리.』

『대기도(大祈禱)⁷¹⁾나 시작허여 봅서.』

『양반(兩班)의 집 후례(後裔)로 어찌 기도(祈禱)를 하겠느냐?』

홀 수 웃이 금마답⁷²⁾으로 대통기⁷³⁾를 비수와⁷⁴⁾ 기도를 시작허여 대시왕연맞이⁷⁵⁾가 근당(近當)
하니, 죽어가던 아기씨가 연주청에 오물떡⁷⁶⁾을 요청(要請)한다.

삽시간(霎時間)에 연주청에 오물떡을 멩글아 서대차룽⁷⁷⁾에 앓다 주니⁷⁸⁾ 아기씨, 머리에 잉어⁷⁹⁾
대시왕연맞이⁸⁰⁾ 앞으로 느나난디⁸¹⁾소리에 춤을 추며 연주청 오물떡으로 가늌무녀⁸²⁾ 대잔치를 한
다. 그걸 본 선감(縣監)은

『양반(兩班)의 집 후렌디 어찌 그럴수 있겠느냐?』

아기씨를 사랑방에 또 가두우니, 아기씨가 주수리남동이⁸³⁾ ?찌 움추려 앉아 푼릿푼릿 죽어간
다. 악생지데 악생이⁸⁴⁾ 느진덕정하님이

56) 팔목을.

57) 덩석 잡고.

58) 바깥엘 나와.

59) 뒤를. 뒤에를.

60) 업어서. 업어가지고.

61) 콩구슬같이.

62) 부풀어지고.

63) 데리고 가다가는.

64) 화를 낼까.

65) 어두움을.

66) 눅던.

67) 눅혀두고.

68) 제주시 삼양리(三陽里)의 부락명.

69) 무색 철에.

70) 따라온.

71) 큰굿의 뜻.

72) 마당을 일컫는 말.

73) 큰굿 때 마당에 세우는 기의 한가지.

74) 세워서의 뜻.

75) 시왕맞이.

76) 연주(煉酒) 꿀을 바른 오물떡.

77) 대채룽.

78) 가져다 주니.

79) 잉어.

80) 시왕젓상(十王祭床) 앞으로의 뜻으로 쓴 것.

81) 여흥구(餘興句).

82) 가문(家門)을 사음절어(四音節語)로 만든 것.

83) 주수리나무로 판 동이.

84) 하녀의 이름이라 함.

『상전(上典) 대리(代理) 나가 나사⁸⁵⁾ 노념을⁸⁶⁾ 흐오리다.』

신의성방(神-刑房)이 첫짐(初占)을 받아

『아기씨상전이 나사 신전국으로⁸⁷⁾ 노념을 허여시민⁸⁸⁾ 조은 짐사(占事)가 느릴 듯하나, 이 일을 허락지 못하기 때문에 아기씨상전 하나로 느진덕정하님 악생덱이나 신의성방(神의刑房)??지라도 대신 대충(代身代充)을 데까흐옵네다.⁸⁹⁾』

『그레도 흘 수 웃다.』

아기씨가 주수리남동이?찌 조침앗아⁹⁰⁾ 프릿프릿 죽어가는 대로 느진덕정하님도 아기씨?찌 주수리남동이?찌조침앗아 대신 대충(代身代充) 뉘고 신의선방도 대신 대충으로 그 곳 무까⁹¹⁾ 집의 간 프릿프릿 죽어갑네다.

장이선감이 대장스(大葬事)로 명두암(明道菴) 고장남밧디⁹²⁾ 아기씨를 선봉(先鋒) 삼아 좌우백호(左右白虎)로 신의성방과 느진덕정하님을 무덤하야 이 오늘??지도 고전적(高典籍) 가문안(家門內) 고장남밧 봉본(封墳) 서이 본메⁹³⁾가 있읍네다.

아기씨 죽어갈 때, 연주청 오물떡에 가문(家門) 잔치를 하와, 그 때에내운 법으로 고전적(高典籍)에줄이 번어, 양사돈(兩查頓) 김전적덱(金典籍宅)에 줄이 번어, 양사돈 육마을⁹⁴⁾ 뉘와, 이 조상(祖上)에 간장(肝臟) 풀리쟁 흐민 대시왕연맛이 앞으로 연주청에 오물떡 하와 가문(家門) 대잔치 하고 주수리남동이를 꾸며 동이풀이헤야 간장을 풀리는 조상입네다. 명두암(明道菴) 고전적(高典籍) 김전적(金典籍) 가문(家門)에 양사돈(兩事頓) 육마을 뉘여 줄이 번은 조상입네다.

- 濟州市 龍潭洞 男巫 安仕仁 口誦

현용준, 『제주도 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pp.823-828.

85) 나서서.

86) 놀이틀.

87) 무악기(巫樂器) 소리로의 뜻.

88) 하였으면.

89) 대신으로 죽읍니다의 뜻으로 쓴 것. 댓가(代價).

90) 두 다리를 구부려 세워서 앉음.

91) 마쳐.

92) 봉개리(奉蓋里) 명도암(明道菴)에 있는 지명.

93) 증거가 될 사물.

94) 여섯 마을. 두 사돈으로 뉘어 6개리에 변진 조상신이란 뜻.